

# 불교식 추석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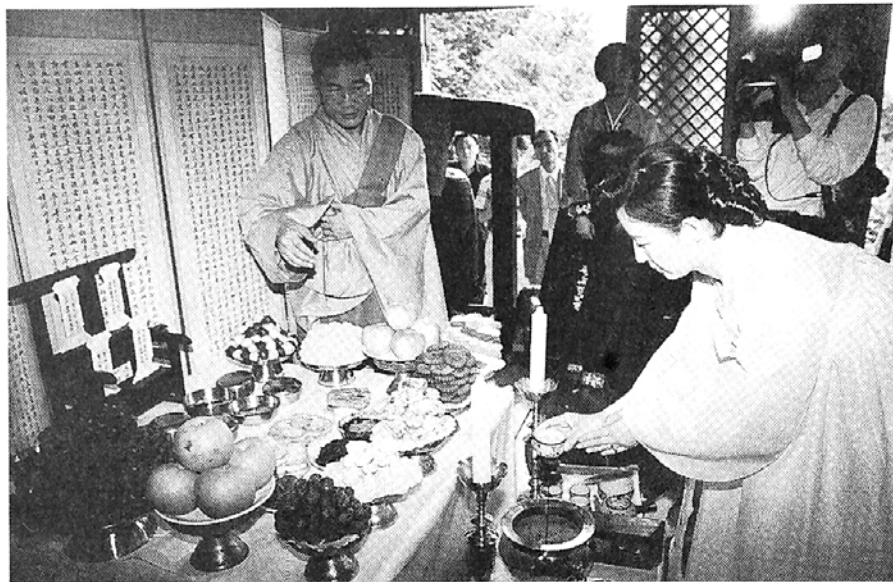
# 술대신 茶... 조상천도

“조상들의 기일(忌日)에 맞춰 지내는 제사(祭禮)와는 달리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식(祭式)은 제사라 하지 않고 ‘차례(茶禮)’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추석을 앞두고 2일 서울 정릉 천중사(주지 운산)에서는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차례의식 시연회가 그것.

## 서울 천중사 전통의식 시연

시연회에 앞서 ‘차례는 불교의식이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은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따르면 충담스님이 미륵부처님께 삼짓날(음 3.3)과 중굿날(음 9.9) 차를 끊어 올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특상 차례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경제가 폐해지

는데 그것을 회음(會音)이라 했다. 회음은 오늘날 제사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과 단자(單子)의식으로 변해 상행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천중사 신도들에 의해 불교차례의식이 시연됐다. 우선 제수음식은 고인이 즐기던 음식으로 정만하고, 술과 고기 대신 차를 올린다.



◇법현스님과 천중사 신도가 불교식 차례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으로 술·고기 대신 차를 올리고 있다.

## 부처님께 茶 올린데서 ‘차례’ 유래 상단-꽃 중단-떡 과일 하단-차 공양

고 도공들이 일본으로 잡혀가면서 영조금일이 민폐를 격정에 귀한 차 대신 술, 송늬를 사용하게 했다. 그 후로도 그 근본 뿌리는 차를 사용했던 불교의식이었기에 그 이름만이 ‘차례’로 남아 오늘에까지 전해진 것이다”고 밝혔다. “차를 올리는 불교식 가례 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적은 각종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초까지 행해지고 있다.” 차례가 시집을 오면 손수 차를 끊어 사당에 올리는 고묘(告廟)가 그 예. 고묘에 사용했던 차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마시면서 머리의 뒤통이를 알아보는데 쓰였

불교식 차례상 차리기 원형과 관련, 불화 특히 감로탱화(甘露瓊糖)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단에는 꽃(모란 작약 연꽃) △중단에는 과일과 떡 과자류 △하단에는 밥과 차 향로 등을 나란히 진열하고 있다. 위패는 보통 ‘현고학생부군신위’ 등으로 작성하나 불교식 차례에서는 ‘선입부문수영가’나 ‘선자모김씨영가’ 등으로 하며, 스님인 경우 ‘00 당대중사 00화상각령’ 등으로 쓴다. 상이 차려지고 위패가 모셔진 후에는 ①큰절 3번과 함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신다.

도필선 기자



◇가족자원봉사자들은 탑골공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마음의 티끌까지 치웠어요” 청교련 ‘탑골·종묘공원 청소’ 가족봉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상)는 지난달 31일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에서 가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중·고등학생과 부모, 현상정사 신도 등 80여명이 참여해 독립선언문과 33인 기념비화, 공원내 쓰레기통과 벤치를 청소했다. 딸 박민혜(백산중 3)와 함께 구슬땀을 흘린 정정희(43)씨는 “청소노동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부모들에게는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계기가 됐

다”고 말했다. 불교어린이 글짓기 공모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회장 박용열)는 30일까지 전국 불교 어린이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법회 등에서 경험한 이야기나 불교교리를 배우며 실천했던 신행담을 글로 표현해 응모하면 된다. 문운·산문부 접수. (02)425-0748

◇불교차례상 차림표

위 패							
고주부	고주모	중주부	중주모	조부	조모	부	모
매경	진	차	진	차	송편		
시집	떡	탕	탕	탕	탕		
나물	나물	간장	식혜	김치			
대추	밤	감	배	사과	과자	과자	

하루전 날씨 예보... 폭우면 ‘알람’

신상품

일기예보 탁상시계

‘가정에서도 손쉽게 일기를 예측할 수 있다.’ 유유히계(대표 박병선)는 일기예보, 온도계, 시계, 달력기능 등이 장치된 자동 일기예보 탁상시계를 새상품으로 내놓았다. 이 제품은 전자시계기능을 내장해 12시간 이후에서 24시간 내의 일기를 맑음, 흐림 등의 그림으로 표시해 준다. 또 폭우가 예상될 때는 알람이 울려 나들이 야외법회시 미리 대처할 수 있다. 가격 5만8천원. (02)202-6067

# 만화 백유경

거울에 비친 자신

옛날 어떤 사람이 몹시 가난하여 많은 빚을 졌으나 값을 길이 없었다 그는 생각 끝에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기로 했다

메일같이 빗장이 한데 풀리며 사느니 차라리 멀리 도망하는 것이

그가 도망한 곳은 사람이 없는 넓은 곳이였다

여기라면 빗장이라도 부터 완전히 해방이다

영! 저건 뭐지?

와! 보... 보물상자다

어떻게 이런 것이 여기에...

...!

영! 보물상자 속에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상자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대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아

나고 죽음의 魔王에게 한량없는 번뇌의 시달림을 받다가

생사의 번뇌를 피해 부처님의 법안과 선한 법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쌓다가

망령되어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여 그것을 진심으로 여긴다

마치 거울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미혹되어 보물상자를 버린 어리석은 사람처럼

佛

우리 국악으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창작국악 교성곡

불발에 피는 꽃은 지장경을 우리 말로 옮긴 창작국악교성곡이다 악업의 꽃이 태오르는 지옥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지장보살 그 모습은 한말기 정아한 연꽃이다 저절히 참회와 지극한 기도 그리고 환희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 곡은 국악과 양악의 적절한 만남 그리고 병행의 현대적 재창조로 천불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글/반영규·곡/지휘/김희경 합창/수원교당당 가톨릭합창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연주/중앙국악관현악단·피아노/함경아 특별출연/김성녀·김영민·성기훈 연출/송·한미경·덕신스님

지구레코드 CD매(2장)/정가 17,000원/사출에서 다량 주문시 할인 가능 전국의 유명 음악사 및 조세사 앞에서 판매 중/문의 ☎ (033)255-2692

천축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옥질이 처음 10분후 백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V 연옥사용후 3.0~V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심건,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햇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읍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옥산가 옥이 귀비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후유증(1)에 전유는 별명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 家 옥이란 곡명에서 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시 중국 옥저로 2가 50번지 (브라운 박화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편번호가) 불공 송음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法華經의 壽를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壽를 위하여 眞善正信 佛經의 功徳의 壽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족을 시경정신으로써 神妙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사경전문강사가 지도할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 합니다.(단체주문은 사증) ※오시본에 속지 마세요.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이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 초정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심사위원장
- 대한국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물품(70萬點) 조사논문 발표
- 고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 예술인 원장

韓國佛教文化 藝術院 雲藏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04) 216-0307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약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도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